



SK텔레콤 “헌혈 릴레이 함께 해요”

SK텔레콤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와 내달까지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SK 레드커넥트 헌혈캠페인’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김영길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장(왼쪽부터), 조남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윤봉영 SK텔레콤 코퍼레이트센터장, 유용환 SK텔레콤 ESG혁신그룹장이 협약 체결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에스오일, 발달장애 오케스트라에 1억 후원금

에스오일이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한 후원금 1억원을 하트하트재단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에스오일의 후원금은 발달장애 청소년의 음악교육을 지원하고, 초·중·고등학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과 햇살나눔콘서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에스오일

하이트진로

영세 외식업 종사자 자녀 지원

하이트진로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외식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와 전라남도지회의 외식업 종사자 자녀 총 3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조호정기자 princess@

BGF리테일-샌드박스 업무협약



BGF리테일-샌드박스, 디지털커머스 활성화 맞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와 MZ세대를 겨냥한 디지털 커머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준 BGF리테일 대표(오른쪽)와 이필성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가 업무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GF



동서식품 맥심커피배 입선최강전 김지석 9단 우승

동서식품이 후원하는 바둑대회 ‘맥심커피배 입선최강전’ 결승에서 김지석 9단이 승리를 차지하며 입선 중의 입선에 등극했다. 지난 5일 개최된 제22회 맥심커피배 입선최강전 결승 2국에서 김지석 9단(왼쪽)과 이지현 9단(오른쪽)이 대국을 두고 있다. /동서식품

세상은 어차피 불공정하다지만 ②



신세철의
쉬운경제

세상이 정말로 공정해지면 어른이든 애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사후 책임을 지우는 방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공정과 정의는 허공중의 메아리가 되어 사람들을 더욱 허탈하게 하며 지치게 할 뿐이다. 유명 국민가수의 노랫말처럼 ‘깜냥도 되지 않는 인사’들이 갑자기 큰일을 맡아 부동산시장을 헤집고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다고 장담하다가 시장을 어지럽힌 대가를 어떻게 치러야 할까? 예로부터,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상책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나서는 것이 큰 병(知不知

上 不知知病, 도덕경 71장)이라며 경계하였다. 오늘날 집을 가진 사람도 근심걱정이 크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적 공황상태에 빠졌는데 엉뚱한 대책들이 시장을 다시 일그러지게 할 우려가 크다. 환언하면, 누구나 제 집을 갖고 싶은 본능을 정부가 아닌 시장이 해결하여야 후유증이 없어진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복잡다기하여 어지러운 부동산관련법과 희대의 위성정당을 탄생 관계법을 거침없이 밀어붙였다. 어찌면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나간 다음 언젠가는 ‘다수결에 의한 입법폭력(legislative violence)’ 사례로 역사의 반면교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처럼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는지 모르는 국회의 1년 예산은 자그마치 7천억 원에 달한다. 그 큰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야

나라 납세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같은 세금에서 지출된다.

‘선출된 권력은 권한이 크다’는 말도 나돌았다. 권한이 큰 만큼 잘못된 일에 대하여 책임지려는 자세가 공정과 정의의 바탕으로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필요조건이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당 대표의 심금을 울리는 발언이 가감없이 실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집값을 떨어트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발언을 믿고 집을 사지 않거나 더 나아가 팔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진 가계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진정한 세상이 되려면 음모관련자들과 입시기관이 합격자 대신 떨어진 낙방생의 인생을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신 떨어졌던

차점자를 찾아내어 사죄하고 보상해야만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 열린다. 정보를 관리하지 못한 정보생산자와 정보를 유용한 자는 공동책임으로 땅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애꿎은 기쁨을 부여잡은 원주민들에게 정신적, 금전적 보상을 해야 마땅하다.

권한은 크고 책임의식은 희미해진다면 엉터리 점성술사가 미사여구를 앞세우며 세상을 마음 내키는 대로 재단하려드는 행태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정과 정의는 구호나 슬로건이 아니라 역사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실천하지 않고 외치기만하다 보면, ‘기우러진 평등’ ‘끼리끼리 공정’과 ‘편파적 정의’가 활개 치기 마련이라 세상살이는 갈수록 어지럽게 될 수밖에 없다.

/경제칼럼니스트



호암재단은 6일 2021 삼성호암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왼쪽부터)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미국 스탠퍼드대 허준이 교수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서울대 강봉균 교수 ▲공학상 뉴욕대 조경현 교수 ▲의학상 존스홉킨스대 이대열 특훈교수 ▲예술상 봉준호 영화감독 ▲사회봉사상 이석로 방글라데시 꼬람톨라병원 원장

‘기생충’ 봉준호 감독 등 6명 ‘삼성호암상’

호암재단 올해 수상자 선정 30대 젊은 과학자 2명 영예

호암재단이 올해에도 우리나라를 빛낸 인물들에 ‘삼성호암상’을 시상했다. 30대 젊은 과학자와 봉준호 감독 등 각계 인사들이 영예를 안게 됐다.

호암재단은 6일 2021 삼성호암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30주년을 맞아 과학상을 물리·수학과 화학·생명과학 등 2개 부문으로 확대한 이후 처음이다.

호암재단은 1991년 처음 시상을 시작해 분야별로 탁월한 업적을 세운 한국계 연구자들을 발굴해 시상 및 소개를 통해 기초과학 육성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명칭을 ‘삼성호암상’으로 변경해 삼성 브랜드를 이용한 장기적 발전과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했

다. 올해에는 국내외 저명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46명 심사위원과 48명 해외 석학 자문위원을 통해 4개월에 걸쳐 세밀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수상자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원을 받게 된다. 오는 6월 1일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과학상 물리·수학부문에서 미국 스탠퍼드대 허준이 교수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서울대 강봉균 교수 ▲공학상 뉴욕대 조경현 교수 ▲의학상 존스홉킨스대 이대열 특훈교수 ▲예술상 봉준호 영화감독 ▲사회봉사상 이석로 방글라데시 꼬람톨라병원 원장이다.

특히 올해에는 영화 기생충으로 프랑스 칸 영화제와 미국 아카데미상을 석권한 봉준호 감독도 포함했

다. 경제적 양극화를 소재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함께 갖춰 한국영화와 문화 우수성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 받았다.

27년간 방글라데시 빈민가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온 이석로 교수도 호암상을 받게 됐다. 연간 8만명을 치료하며 무료 간호학교를 설립하는 등 사회에 큰 기여를 해왔다.

허준이 교수와 조경현 교수 등 30대 젊은 과학자도 2명이나 선정하며 국내 학계에 큰 업적을 세우게 됐다.

한편 삼성호암상은 호암 이병철 선생의 인재제일과 사회공익 정신을 기려 학술·예술 및 사회발전과 인류복지 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사를 현창하기 위해 이견희 삼성 회장이 1990년 제정했다. 31회에 걸쳐 158명에 289억원 상금을 전달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제 29회 JW중외박애상에

이송 서울성심병원장

JW중외제약은 제29회 JW중외박애상 수상자로 이송 서울성심병원장(사진)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JW중외박애상은 사회에서 박애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JW중외제약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이송 병원장은 ‘진료 현장에서 미래의 의료인을 육성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도심형 거점병원이자 교육수련병원으로서 서울성심병원을 건립하고 후학양성과 지역 의료에 헌신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울성심병원은 연간 외래환자 10만 명에 이르는 진료실적으로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정형외과 전문 종합병원이다. 이송 병원장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성심병원장으로 역임하며 병원 경영에 충실하면서도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1700여 건에 이르는 수지 재접합수술과 2만 건이 넘는 인공슬관절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하여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다. 기독교적인 신앙심을 바탕으로 의료봉사와 사회공헌사업에도 앞장섰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인사

◆교육부 <승진> ◇과장급 △국제교육협력담당관 최수진 △전문대학지원과장 김석 ◇4급 △고등교육정책실 서기관 박소하 △고등교육정책실 서기관 신민규 △학교혁신지원실 서기관 이용욱 △학교혁신지원실 서기관 최지웅 △교육복지정책국 서기관 이창선 △학생지원국 서기관 남궁현 △평생미래교육국 서기관 김성희 △경북대학교 서기관 이

홍근 △군산대학교 서기관 정근목 △금오공과대학교 서기관 김용섭 △목포대학교 서기관 황선환 △학생지원국 기술서기관 정희권 △교육안전정보국 기술서기관 유성석 ◇5급 △교육부 행정사무관 김지원 △고등교육정책실 행정사무관 윤상운 △국립특수교육원 행정사무관 안은경 △중앙교육연구원 행정사무관 백재현 △공주대학교 행정사무관 정을균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지원근무

시설사무관 차래혁
◆통계청 ◇과장급 △동북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 신명철

부음

▲양정숙씨 별세. 이인천(동화운수 사장)·명천(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수천(동화운수 전무)씨 모친상, 이성도(원광대외산센터 교수)·성화(가정의학과 전문의)·의선(응급의학과 전문의)·성

의(광주운누리약국 대표약사)·성재(육군중위)씨 조모상 =6일 04시33분, 광주 수안센터병원 장례식장, 발인 8일 8시30분. (062)959-4444

▲지부전씨 별세. 지만수(CBS 대구방송본부 보도제작국 선임기자)·민석(개인사업)·영신씨 부친상, 정윤희·최효연씨 시부상, 여진균(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씨 장인상 =5일 오후 9시, 대구전문장례식장 특101호, 발인 8일 오전 8시30분. 053-961-4444